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으라”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법정 스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 3월 11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항상 “불필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니, 갖지도 말아야 한다”며 ‘무소유’를 강조했던 스님의 말들은, 이상하게도 사람들 가슴에 ‘소유’하고 싶은 말들로 자리 잡고 있다.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일기일화> <아름다운 마무리> 등 많은 책을 통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법정 스님. 그런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은 그간 스님을 지탱했던 ‘도반’ 같은 책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강원도 산중 오두막에서 홀로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는 스님은, 많은 저서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감호수를 내렸지만, 본인 또한 많은 책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어느 자리에서나 항상 법정 스님은 ‘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책은 그런 법정 스님이 추천하는 꼭 읽어야 할 50권의 도서 목록들로 구성돼 있다.

소개된 책들은 출판사가 2년여에 걸쳐 스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끝에 선정했다. 스님의 법문과 산문, 편지글에서 언급한 책들도 함께 수록했다. 책에 실린 도서목록들은 종교의 경전부터 문학작품, 환경서적까지 각양각색이다. 스님의 독서량이 얼마나 방대했는지 짐작해볼 수



법정 스님을 생각하며...

“누신데 남의 얼굴을 허락도 없이 마구 찍는 거요?”

몇 해 전, 법회에서 스님이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스님은 방으로 들어가셨다. 법회가 시작되고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동안에도 나는 사진을 또 찍어야 했다. 이번엔 아예 법당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와 셔터 소리가 법문을 방해했던 것이다. 나갈 수도,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앉아있어야 했다. 물론 법문

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003년 2월 16일 길상사에서였다.

그리고 2010년 3월 11일, 스님이 입적하셨다. 우연히 보게 된 법문집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에 그 날의 법문이 실려 있었다. “한밤중에 기침이 잠을 깨우면, 전에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침이 아니면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불러 깨우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야 그 날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글·사진=박재관 기자



2003년 2월 16일 길상사에서 법문을 하기 전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뒷마루에 앉아 저서에 사인을 하는 법정 스님. 길상사 행사실 마당을 거닐며 밖을 보고 있다(오른쪽). 법정 스님은 이 방에서 이승에서의 육신을 내려놓았다.

추모사

법정 스님의 원적에 종교계 예술계 정치계 인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스님의 분향소가 설치된 길상사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1일 법정 스님의 분향소가 있는 길상사를 찾기에 앞서 스님을 대중사 법계를 추서했다.

스님은 애도문에서 “법정 스님은 그동안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 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 온 큰 스승이셨다”며 “또한 스님은 일생동안 수많은 저서를 남기시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셨다”고 애도했다.

같은 날, 가톨릭 정진석 추기경은 애도문을 통해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법정 스님의 원적은 불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이라고 말했다.

청정승가불위대중결사(의장 진오)는 애도문에서 “종단·사회에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참스승 법정 스님이 열반에

신이었다”라며 “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중생의 이교득락을 염원하며 청빈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큰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자”고 밝혔다.

박근혜 한나라당 前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

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님은 이 시대 참 현인이었고, 혹독한 독재의 시대에는 몸소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실천자였다. 스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살아생전 빈 몸 그대로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셨다. 자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삶 자체로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스님의 대표작인 <무소유>를 책이 많을 정도로 읽었고 해외 순방이나 휴가를 갈 때도 항상 법정 스님의 수필집을 지녔다고 한다.

조동섭 기자

종교 초월한 추모 물결 ‘넘실’... 조계종 대중사 법계 추서

드셨다”며 “경쟁과 폭력 그리고 소우유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물신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때에 스님이 설파한 무소유 정신과 조화, 포용, 자비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승가회(대표 퇴환)는 “스님이 남긴 무소유의 가르침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정신적 좌표이며, 탐욕과 어리석음에 물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정화하는 시대정

이 길상사를 찾은 것과 별도로 정치권도 논평을 통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립과 갈등, 탐욕이 팽배한 세상에서 스님이 남긴 무소유와 화합의 정신은 맑은 정화수로 흐를 것”이라며 “큰어르신을 보내드리는 마음 아쉽고 슬프지만 풍경소리 같은 맑은 여운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 화합,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해 김수환 추기경님에 이어 올해에는 법정 스님까지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허망하다”며 “스님의 말씀에 따라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법정 스님 추서에 조전을 보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조전에서 “존경하는 법정 큰스님의 원적에 삼가 애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시음용
종교서적
종교서적
종교서적

전화 145,000
02)2004-8216

스님은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으라”고 당부했다. 책을 읽을 때의 마음자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책 속에 등장하는 책들은 스님의 독서기록이다. 스님이 팔라주신 이 책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짐작하게 한다.

아마도 이 책을 읽은 후, 소개된 50권의 책을 모조리 읽고 싶은 충동이 들 것이다. 혹여나 스님 같은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법정 스님 같은 삶을 그대로 따라 살진 못하더라도, 책들을 통해 스님의 삶의 발자취는 어렵풋 느낄 수 있다. 스님을 그렇게 만드는 책이다.

이은경 기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다산 정약종 △식물의 정신세계/피터 톨킨 △ 크리스토퍼 버드 △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엘렌 니어링 △ 할아버지의 기도/레이첼 나옴 리엔 △ 작은 것이 아름답다/E.F. 슈마허 △인간의 대지/생태학자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죽음의 수용소에서/버터 프랭클 △나무루 안아 보았나/조안 마루프 △용서/달리야 라마 △빅터 헨 △사막별 여행/무사 앗시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 가지/김태정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지프 크리슈나무르티 △공유지의 비극/개릿 하딘 △숨어 사는 즐거움/허균 △암메드카르디안 찬드 아하르 △풍요로운 가난/엠마누엘 슈너 △불타 석가모니/외타 나베 쇼코 △가비오파스/앨런 와이즈먼 △육식의 종말/제레미 리프킨 △반 고흐, 영혼의 편지/벤트 반 고흐 △녹색평론/겨울간지 △희망의 이유/제인 구달 △NOW-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에코하르트 톨레 △나는 어떤 책을 읽어 왔나/다치바나 다카시

불탑의 나라, 황금의 땅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일 : 5월 24일, 28일 (2회) / 6월 4일, 15일 (2회)

초특가!! 단 4회
신청마감
4월 23일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6일 - 135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 140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와 / 헤호 - 7일 - 145만원

특전

1. 국제선 및 국내선 왕복항공료 포함.
2. 전일정 특급호텔 및 식사포함.
3. 1억 원 여행자 보험 포함
4. 각종 항공세 포함 (국제선 및 현지항공세 \$10,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천공항세, 유류할증료)
5. 일정표상에 명시된 파고다 입장료 포함.
6. 미얀마 비자비용 (25,000원)
7. 불포함 외에는 추가비용 없습니다. (불포함 : 개인적인 제반사항 및 생수비용, 가이드+기사팀)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 북경 / 백두산 6일 - 베트남 하롱베이 / 캄보디아 씨엠립 6일 - 캄보디아 씨엠립 5일 - 방콕 / 파타야 5일 - 대만 4일

2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불교성지전문 에스굿여행사 대표전화 02)365-7747

